

# 말씀의 샘

##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행복 <요한복음 20:19~31>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목사에게 위임해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사에게 찾아와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주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간절히 권면합니다. “주님께 직접 나아가 보세요.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대답합니다. “저는 평신도잖아요!” 여러분, ‘예수 전문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넘겨줄 것이 따로 있다고 해도 어떻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목사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됩니다. 목사는 단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돕는 일만 할 뿐입니다.

고후 1: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오늘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행복이 무엇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누리는 축복이 수없이 많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려는 행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평강을 3번이나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상실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자꾸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도 안계시고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주신 평강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또는 문제를 만났을 때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 평강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은 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정확히 마가다락방의 성령강림과 함께 이뤄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진짜 이 평강이 이루어 집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흉악한 폭도들 앞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성전 뒤뜰로 달려가서 기탄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두려움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안에서 평강이 이뤄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한국으로 다서 돌아가서의 일을 알 수 없고, 대학 졸업 후에 있을 일을 알 수 없고, 캐나다에 있으면서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우릴 보내시는 미래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그 자리를 위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이며, 평강을 약속받는 자리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한복음 20: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 번씩이나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공간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제자들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 오실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간과 환경과 상황의 제약을 받습니까? 그 제한 속에서 때론 불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제한받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초월적이시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하십시오.

**둘째, 생명입니다.**

**요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드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도 곧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실재적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보면서 제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주신 뒤에 제자들은 완전히 부활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이 실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너무도 몽환적이고 추상적이며 막연하게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실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도 순응적이며 환경에 따라 걱정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믿음의 야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성령을 받으면 실재로 가진 것처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장래 일을 알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서 소개하셨습니다. 장래 일을 어떻게 알리실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볼 때 그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거나 이상을 볼 때는 **당장 일어날 것처럼, 지금이라도 곧 벌어질 일처럼** 실재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멀리있는 장래 일을 지금 경험시켜주시고 지금 누리도록 알려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부터 영생,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우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실재성을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만나야 합니다. 제발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두란노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 2016. 4. 17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4. 24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20:24~31

말 씬 선 포 ----- 도 현웅 선교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